



8주 소그룹 독서모임 가이드

#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복음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



교회를 건강하게

[chmovement.org](http://chmovement.org)

## 8주 소그룹 독서모임 가이드

### ① 주차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지금 행복한가?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자유와 기쁨이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비교·눈치가 늘고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돌아보는 출발점입니다. 책 제목과도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 ② 주차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가, 지치게 하는가?

예배, 봉사, 헌금, 직분, 행사 등이 성도를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부담과 죄책감만 더하는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개인의 경험과 교회의 문화가 동시에 드러나는 주제입니다.

### ③ 주차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까지인가?

목회자의 지도력과 성도의 순종, 맹종의 차이,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교회인지 등을 다룹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에게 매우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 ④ 주차 복음을 믿는다면 새로운 율법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주일성수, 새벽기도, 헌금, 봉사, 전도, 직분 등이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변질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피봅니다.

### ⑤ 주차 돈과 직분 앞에서 교회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헌금이 많은 사람의 영향력, 재정 공개, 목회자 사례, 교회 재산, 장로·권사·집사 직분의 의미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직접적입니다.

### ⑥ 주차 우리 교회에는 복음이 중심인가?

설교, 교육, 봉사, 전도, 교회 성장과 프로그램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자리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 ⑦ 주차 우리 예배는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인가?

설교, 찬양, 기도, 성경봉독, 헌금과 성찬 속에서 회중이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여자인지 점검합니다..

### ⑧ 주차 우리가 함께 만들고 싶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제 비판으로 끝내지 않고 실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켜야 할 것, 바꾸어야 할 것,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을 개인과 공동체가 각각 정리하도록 합니다.

## 1 주차

###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지금 행복한가?

####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뜻일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직분을 맡고, 봉사와 헌금과 기도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는 것과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일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많을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할 수도 있고, 교회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할 수도 있다. 봉사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줄었을 수도 있다. 신앙에 관한 지식은 많아졌지만 사람에게 더 너그러워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8주 독서모임의 첫 질문은 교회를 향하지 않는다. 먼저 나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지금 행복한가? 이 질문은 “교회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는가?”를 묻는 질문이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 1.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신앙이 성숙한 것은 같은가?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의 연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교회 다닌 지 30년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장로로 20년을 섬겼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아니다. 나무도 오랫동안 서 있다고 모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신앙생활 역시 얼마나 오래 했느냐 못지않게 그 시간을 지나며 어떤 열매가 생겼는가가 중요하다.

나는 이전보다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사람을 더 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졌는가? 실수했을 때 변명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는가?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는가? 이런 변화가 신앙의 연수를 보여주는 또 다른 흔적일 것이다.

#### 2.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전도는 모두 귀한 신앙생활이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 한 사람은 감사해서 봉사하지만 다른 사람은 빠지면 눈치가 보여서 봉사할 수 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예배하지만, 다른 사람은 결석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해서 예배할 수도 있다.

행동은 똑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기쁨과 자유가 있을 수도 있고 부담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기뻐서 하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 3.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다. 서로 배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의 시선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번 모임에 빠지면 뭐라고 할까?” “권사인데 이것도 안 하면 되겠어?” “장로가 그런 말을 해도 되나?” “헌금을 줄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신앙생활을 지배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에 더 민감해진다. 오랜 신앙생활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했다면 이제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신앙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으로 조금씩 옮겨가야 하지 않을까?

#### 4.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도 괜찮은가?

교회 안에도 비교가 존재한다. 누가 더 열심히 봉사하는가. 누가 더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가. 누가 목회자에게 인정받는가. 누가 성경을 많이 아는가. 누가 더 많은 헌금을 하는가.

비교는 때로 우리에게 우월감을 주기도 하고 열등감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자유롭지는 않다. 복음은 나의 가치를 다른 성도와 비교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면 이런 상태에 가까워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 있어도 괜찮다.” “내가 중요한 직분을 맡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비교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

#### 5. 나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오랜 신앙생활의 결과를 가장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인간관계일지 모른다.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사람에게 더 까다로워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을 많이 알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 직분은 높아졌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더 따뜻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

신앙의 성숙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교회를 오래 다닌 나는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 6.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평안해졌는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질병과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은 찾아온다. 그러므로 행복한 신앙생활이란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 존재와 가치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전보다 실패를 덜 두려워하는가?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견딜 수 있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가? 신앙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내적 평안도 함께 깊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 함께 생각해 봅시다

#### 1. 나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그 시간 동안 나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 2.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다음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기쁨 / 감사 / 자유    또는    의무 / 부담 / 눈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교회를 오래 다닌 결과 내 성격이나 인간관계에서 분명히 좋아진 부분이 있는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이야기해 보자.

4. 반대로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아직 별로 달라지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5. 나는 교회 사람들의 평가를 얼마나 의식하는가?

목회자, 직분자, 다른 성도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거나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가?

6. 나는 다른 성도와 나 자신을 무엇으로 비교하는가?

직분, 봉사, 헌금, 성경 지식, 사회적 위치, 목회자와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민감한 것은 무엇인가?

7. “나는 지금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인가?

그리고 그 점수를 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 나의 신앙생활 점검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보자.

| 다음 문장을 읽고 현재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보자.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나는 예배가 의무보다 기쁨에 가깝다.                                    |        |         |        |           |           |
|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없어도 나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         |        |           |           |
| 다른 성도의 신앙생활과 나를 지나치게 비교하지 않는다.                          |        |         |        |           |           |
|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        |         |        |           |           |
|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        |         |        |           |           |
|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너그러워졌다.                          |        |         |        |           |           |
|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교적 쉽게 인정할 수 있다.                    |        |         |        |           |           |
| 힘들거나 지쳤을 때 믿음이 부족하다고 자책하기보다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다.      |        |         |        |           |           |
|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크다. |        |         |        |           |           |
| 나는 예전보다 더 자유롭고 평안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낀다.                    |        |         |        |           |           |

## 세 가지를 적어봅시다

- ✓ 교회를 오래 다니며 내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1) 2) 3)
- ✓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1) 2) 3)
- ✓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더 누리고 싶은 것은? 1) 2) 3)

## 한 가지 구별해 보기

이번 주에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

예배 | 기도 | 봉사 | 헌금 | 성경 읽기 | 교제 | 기타

- ✓ 내가 기쁨과 감사로 하고 있는 것
- ✓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하고 있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그만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같은 봉사도 사랑으로 할 수 있고 두려움으로 할 수 있다. 같은 예배도 감사로 드릴 수 있고 의무감으로 드릴 수 있다. 건강한 신앙은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 내는 마음까지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

## 우리 공동체도 함께 돌아봅시다

개인의 행복과 교회의 건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성도를 자유롭게 하는 교회문화가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도록 만드는 교회문화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질문해 보자.

✎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 ✓ 더 자유로워지는가?
- ✓ 더 사랑하게 되는가?
- ✓ 더 너그러워지는가?
- ✓ 더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게 되는가?

(아니면)

- ✓ 더 눈치를 보는가?
- ✓ 더 많은 일을 해야 인정받는다고 느끼는가?
- ✓ 더 쉽게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가?
- ✓ 더 말하기 어려워지는가?

✎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좋은 것 한 가지

✎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것 한 가지

## 이번 주 실천

이번 한 주 동안 하루에 한 번만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

- ✓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았는가,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가?
- ✓ 그리고 한 주가 끝났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를 적어본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지나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신앙의 성숙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복음 안에서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 2주차

###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가, 지치게 하는가?

예배·봉사·헌금·직분·행사 속에서  
성도를 성장시키는 교회 문화와 지치게 하는 교회 문화를 함께 점검합니다.

#### 이번주 핵심질문

교회 생활은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교회 자체에 지치게 하는가?

#### “좋은 일”도 사람을 지치게 할 수 있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은 본래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봉사는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며, 헌금은 감사와 나눔의 표현이다. 직분은 책임 있게 섬기기 위한 자리이고, 교회 행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좋은 목적을 가진 일이라도 방식이 잘못되면 사람을 지치게 할 수 있다. 참석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봉사를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고, 헌금 액수로 신앙을 판단받는 것 같고, 직분이 명예와 서열이 되며, 행사가 끊이지 않아 가정과 일상이 무너진다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교회에 일이 많은가 적은가”가 아니다. 그 일들이 사람을 복음 안에서 성장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죄책감과 눈치와 과도한 의무감으로 움직이게 하는가 하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를 많이 움직이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교회다.

#### 1. 예배

예배는 교회생활의 중심이다. 그러나 예배 참석이 신앙의 전부처럼 평가되기 시작하면 예배는 은혜의 자리보다 의무 확인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주일예배와 각종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소중하다. 하지만 질병, 직장, 돌봄, 가정 사정 등 현실적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왜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문부터 한다면 성도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의식하게 될 수 있다.

예배가 건강한 교회에서는 참석 횟수만 확인하지 않는다. 예배를 통해 성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삶에서 정직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도록 돕는지를 함께 본다.

#### 2. 봉사

교회는 수많은 봉사로 유지된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목사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어서”,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계속 맡는다면 봉사는 쉽게 소진으로 이어진다.

건강한 봉사는 선택할 자유와 쉼 자유를 포함한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같은 일을 떠맡지 않도록 역할을 나누고, 개인의 건강과 가정, 직장 상황을 존중하며, 봉사를 하지 않는 기간에도 그 사람의 신앙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 3. 헌금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공동체의 사명을 위한 중요한 신앙 행위다. 그러나 헌금의 액수와 종류가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복음의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

큰 헌금을 한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갖거나, 특정 헌금을 하지 않은 성도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재정 사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면 헌금은 감사보다 부담과 불신을 만들 수 있다.

건강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기보다 의미를 가르치고, 재정을 투명하게 설명하며,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도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존중한다.

### 4. 직분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분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책임의 자리다. 그러나 직분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받을 때가 된 자리”나 “교회에서 인정받았다는 증표”로 여기기 시작하면 직분은 서열이 된다.

직분을 받지 못해 상처받고, 직분을 받은 뒤 발언권이나 대우가 달라지며, 직분자가 되기 위해 재정적·활동적 조건을 과 도하게 요구한다면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건강한 교회에서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 있게 낮아지는 자리여야 한다.

### 5. 행사와 프로그램

수련회, 부흥회, 선교행사, 교육 프로그램, 각종 모임은 공동체에 활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행사가 너무 많아지면 성도는 교회 일정에 끌려다니며 가정과 휴식, 이웃과의 관계를 잃을 수도 있다.

프로그램의 숫자가 교회의 건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 행사가 정말 성도에게 필요한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 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는가?”를 정기적으로 물어야 한다.

교회는 성도를 교회 건물 안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보내는 공동체여야 한다.

####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1) 우리 교회생활 가운데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

(2) 반대로 “하기 싫어도 안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교회 활동이 있는가? 왜 그렇게 느끼는가?

---

(3) 예배참석, 봉사, 헌금, 직분, 행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4) 같은 다섯 영역 가운데 가장 먼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5) 교회 지도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성도에게 죄책감이나 부담을 줄 수 있는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6) “열심 있는 성도”와 “성숙한 성도”는 같은 의미인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

(7) 교회가 성도에게 더 많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우리 교회 문화 점검표

각 문항을 읽고 우리 공동체의 현재 모습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보자. 개인의 불만을 확인하기 위한 표가 아니라,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기 위한 점검이다.

| 점검 문항                                  | 반응                                                                                    |
|----------------------------------------|---------------------------------------------------------------------------------------|
| 예배 참석이 어려운 사정을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려 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봉사를 거절하거나 쉬어도 신앙이 부족한 사람처럼 평가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봉사자가 과도하게 소진되지 않도록 역할을 나누고 교체 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헌금의 의미를 가르치되 액수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교회 재정의 사용 원칙과 결과를 성도에게 투명하게 설명 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직분은 명예보다 책임과 섬김으로 이해되고 있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직분이 없는 성도도 동일하게 존중받고 의견을 낼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행사와 프로그램을 관성적으로 반복하지 않고 필요성을 점검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가정, 직장, 건강과 휴식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존중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성도가 교회 지도자에게 부담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교회활동의 양보다 사람의 변화와 성숙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교회가 성도를 붙잡아 두기보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점검후함께적어보기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데 잘하고 있는 한 가지: \_\_\_\_\_

우리 교회가 성도를 지치게 할 수 있어 다시 살펴볼 한 가지: \_\_\_\_\_

## 현실 사례로 토론해 봅시다

### 사례

한 성도는 직장가 가족 돌봄으로 매우 지쳐 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 봉사, 평일 소그룹, 특별새벽기도, 행사 준비까지 맡고 있다. 담당자는“지금 이 은혜받을 때”라며 조금만 더 힘내자고 격려한다. 이 성도는 거절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아무말도 하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문제는 성도의 믿음 부족일까, 공동체의 배려 부족일까? 혹은 둘 다 아닐까?

- 이 성도에게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할 말은 무엇인가?
- 교회 지도자는 어떤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까?
- 우리 공동체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원칙을 세울 수 있을까?

## 이번 주 실천

이번 주에는 교회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기보다, 이미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성도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자.

### 개인 실천

내가 현재 맡은 교회 활동 가운데 기쁨으로 하는 일 1 가지: \_\_\_\_\_

의무감과 눈치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일 1 가지: \_\_\_\_\_

필요하다면 누구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 것인가: \_\_\_\_\_

### 공동체 실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꼭 지켜야 할 좋은 문화 1 가지: \_\_\_\_\_

성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꾸거나 멈춰 볼 수 있는 관행 1 가지: \_\_\_\_\_

#### 이번 주에 기억할 문장

교회는 성도를 교회 일에 묶어 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 ③ 주차

##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까지인가?

목회자의 지도력과 성도의 순종, 건강한 존중과 맹종의 차이,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교회 문화를 함께 점검합니다.

### 이번주 핵심질문

목회자의 권위는 성도를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힘인가,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도록 섬기는 책임인가?

### 권위가 없는 교회도 문제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위는 더 위험하다

교회에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며, 갈등 속에서 결정을 돕고,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건강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말에 질문할 수 없고, 다른 의견을 내면 불순종으로 여겨지며, 중요한 결정이 한 사람의 판단에만 의존한다면 권위는 섬김이 아니라 통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질문은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다.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오며,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어디에서 멈추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건강한 목회 권위는 성도를 작아지게 하지 않는다. 성도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 분별하고 책임 있게 서도록 돕는다.

### 1. 목회자의 권위는 직분에서 끝나는가, 말씀과 삶으로 확인되는가?

목회자는 안수와 직분을 통해 공동체의 공적인 책임을 맡는다. 그러나 직분이 모든 판단을 자동으로 옳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맡겨진 직분과 함께 말씀에 충실한 가르침, 성실한 삶, 책임 있는 섬김을 통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말과 “함께 말씀 앞에서 옳은 길을 찾자”란 태도는 다르다. 전자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지만, 후자는 공동체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게 한다.

### 2. 순종과 맹종은 어떻게 다른가?

성경은 공동체의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성경적 순종은 생각을 멈추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조차 성경과 대조하여 확인했다.

건강한 순종에는 분별이 함께 있다. 지도자의 말이 성경과 복음에 부합하는지 살피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며, 필요할 때는 정중하게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맹종은 “누가 말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강한 순종은 “그 말이 복음과 진리에 부합하는가”를 함께 묻는다.

### 3.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위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수님은 당시 권력자들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방식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막 10:42-45).

베드로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권했다(벧전 5:2-3). 교회 안의 권위는 세상의 지위와 달리 사람을 지배하는 특권이 아니라 돌보고 책임지는 섬김에 가깝다. 따라서 목회자의 권위가 커질수록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설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방향이다.

#### 4. “목사님 말씀에 토를 달지 마세요”라는 문화는 무엇을 만들까?

공동체 안에서 질문을 곧 반항으로 받아들이면 성도들은 점차 침묵한다. 겉으로는 갈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토론과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특히 인사, 재정, 건축, 교회 재산, 징계처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일수록 여러 사람이 정보를 알고 질문하며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

질문할 수 있는 교회는 목회자를 약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다. 오히려 한 사람에게 과도한 책임과 유혹이 집중되지 않도록 목회자를 보호하는 교회이기도 하다.

#### 5. 목회자의 권위에도 경계선이 필요하다

목회자는 성도의 삶을 돕고 조언할 수 있지만, 성도의 직업 선택, 결혼, 재산 사용, 인간관계와 같은 모든 개인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영적인 권위를 이유로 사적인 충성, 금전, 비밀 유지, 특정 관계의 단절을 요구하거나,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목회는 성도가 목회자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1) 내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권위”는 무엇인가? 권위와 권력은 어떻게 다른가?

---

(2) 목회자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곧 불순종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 있다면 어떤 경우이고,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

(3) 성도가 설교나 교회 결정에 질문했을 때 목회자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

(4)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

(5) 목회자의 사생활이나 재정,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공동체적 책임과 점검이 필요한가?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

(6) 성도가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

(7)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건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

## 우리 교회의 권위 문화 점검표

각 문항을 읽고 우리 공동체의 현재 모습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보자. 특정 목회자를 평가하기 위한 표가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점검이다.

| 점검 문항                                      | 반응                                                                                    |
|--------------------------------------------|---------------------------------------------------------------------------------------|
| 목회자는 자신의 의견과 성경의 가르침을 구분하여 설명하려 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성도는 설교나 교회 결정에 대해 정중하게 질문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목회자와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낙인찍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중요한 재정과 행정 결정은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목회자의 잘못이나 실수가 드러났을 때 책임있게 다룰 절차가 있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목회자는 자신에 대한 비판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성도의 개인적 결정에 조언하되 최종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직분자와 평신도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받고 의견을 낼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목회자의 가족이나 측근이라고 해서 특별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목회자는 자신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고 수정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성도는 목회자를 존중하지만 그의 모든 말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교회의 지도력은 성도를 목회자에게 의존시키기보다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돕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점검 후 함께 적어보기

우리 교회의 지도력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_\_\_\_\_

목회자와 성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다시 살펴볼 한 가지: \_\_\_\_\_

## 현실 사례로 토론해 봅시다

### 사례

교회가 큰 재정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담임목사는 “오랫동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한다. 몇몇 장로와 성도는 재정 부담과 절차를 더 검토하자고 제안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목사님의 영적 지도력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상황에서 목회자의 영적 지도력은 어떻게 존중되어야 하며, 공동체의 질문과 검토는 어디까지 필요할까?

-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표현은 공동체의 토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목회자는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건강한가?
- 장로와 성도는 어떤 방식으로 질문해야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참여가 될 수 있는가?
-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정보와 절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목회자와 성도가 각각 돌아볼 질문

### 목회자라면

-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없는가?
- 나와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방어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 하는가?

- 성도들이 나 없이도 말씀을 분별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도록 돕고 있는가?
- 나의 결정과 재정, 사역을 점검해 줄 사람과 구조가 있는가?

#### 성도라면

- 나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과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 불만을 뒤에서 말하기보다 필요한 질문을 정중하고 책임 있게 전달하는가?
- 내가 원하는 결정이 아닐 때도 공동체의 건강한 절차를 존중할 수 있는가?
- 목회자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모든 영적 책임을 맡기고 있지는 않은가?

#### **이번 주 실천**

이번 주에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권위를 추상적으로 논하기보다, 실제 관계에서 한 가지를 실천해 보자.

#### 개인 실천

내가 목회자 또는 교회 지도자에게 묻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질문 한 가지: \_\_\_\_\_

그 질문을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책임의 언어로 다시 표현해 보기: \_\_\_\_\_

#### 공동체 실천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안전하게 질문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인가? \_\_\_\_\_

그 통로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_\_\_\_\_

#### **이번 주에 기억할 문장**

목회자의 권위는 사람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힘이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도록 섬기는 책임이다.

## 4주차

### 복음을 믿는다면 새로운 율법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주일성수, 새벽기도, 헌금, 봉사, 전도, 직분이  
신앙의 열매인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인지 함께 점검합니다.

#### 이번주 핵심질문

좋은 신앙의 습관이 언제 복음의 열매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는가?

#### 좋은 것이 기준이 되는 순간

주일예배, 기도, 헌금, 봉사, 전도, 직분은 모두 소중하다. 교회는 이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 성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섬겨왔다.

문제는 좋은 신앙의 실천이 어느 순간 “이것을 얼마나 잘하는가”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 시작된다. 예배를 한 번 빠졌다는 이유로 믿음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고,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열심 없는 성도로 여기며, 헌금이나 봉사의 양으로 충성도를 판단한다면 신앙의 열매가 새로운 율법처럼 작동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신앙생활의 좋은 전통을 버릴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전통이 복음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대신 사람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 1. 주일성수

주일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전통이다. 그러나 예배 참석 자체가 사람의 믿음을 재는 가장 중요한 자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

질병, 돌봄, 직업, 가족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예배 참석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사정을 듣기 전에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면 예배는 은혜의 자리보다 평가의 기준이 되기 쉽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출석 횟수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 전체의 예배를 함께 가르친다.

복음은 “얼마나 했는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길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길이다.

#### 2.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영적 훈련이었다. 그러나 새벽기도 참석 여부를 신앙의 등급처럼 사용하면 기도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출근길에, 어떤 사람은 늦은 밤에 기도한다. 중요한 것은 특정 시간에 교회에 나오는 행위 자체보다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는가 하는 점이다.

“새벽기도에 나오니까 믿음이 좋다”는 단순한 판단은 눈에 보이는 행동과 보이지 않는 신앙의 깊이를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

#### 3. 헌금

헌금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공동체의 사명을 함께 책임지는 신앙 행위다. 그러나 금액이나 종류가 사람의 믿음, 헌신, 직분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복음의 질서가 흔들린다.

경제적 형편은 사람마다 다르다. 많이 드리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고 적게 드리는 사람이 덜 충성스럽다고 말할 수 없다. 헌금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발성과 책임의 문제여야 한다.

특히 헌금한 금액이 교회 안의 발언권이나 영향력과 연결되는 순간, 재정은 섬김의 도구보다 권력의 도구가 될 위험이 있다.

#### 4. 봉사와 전도

봉사와 전도는 교회의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분위기가 생기면 자원하는 마음보다 죄책감과 눈치가 사람을 움직이게 된다.

이미 가정과 직장에서 지친 성도에게 계속 새로운 봉사를 맡기고, 거절하면 헌신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면 섬김은 은사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

건강한 공동체는 성도의 형편과 은사, 삶의 계절을 존중한다. 봉사는 자리를 채우기 위한 동원이 아니라 각 사람이 받은 은사로 기쁘게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 5. 직분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책임이다. 그러나 직분이 신앙 경력과 명예를 인정받는 표지가 되면 사람은 직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

“아직도 직분을 못 받았느냐”는 말이나, 직분을 받지 못해 상처를 받는 문화는 직분이 섬김보다 신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고 책임지는 것이 교회 직분의 본래 방향이다.

#### 6. 새로운 율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권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 훈련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권면”이 “규칙”이 되고, 규칙이 “평가 기준”이 되며, 평가 기준이 사람을 나누는 경계가 될 수 있다.

그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동하기보다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고, 하지 못했을 때 회개보다 수치심을 느끼며,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

율법주의의 위험은 규칙이 있다는 데 있지 않다. 그 규칙이 은혜보다 앞서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처럼 작동하는 데 있다.

####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1. 내가 자라온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_\_\_\_\_
2. 주일예배, 새벽기도, 헌금, 봉사, 전도 가운데 내가 가장 부담이나 죄책감을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왜 그랬는가?  
\_\_\_\_\_
3. 좋은 신앙의 습관을 권하는 것과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_\_\_\_\_
4. 교회가 일정한 기준 없이 운영될 수는 없다. 필요한 질서와 율법주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_\_\_\_\_

5. 헌금이나 봉사의 정도가 직분 선출이나 교회 내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당한가?
6.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표현이 필요한 경우와 위험한 경우는 각각 언제인가?
7.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자유를 더 살리면서도 신앙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가?

#### 우리 교회의 “새로운 율법” 점검표

각 문항은 좋은 신앙습관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이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점검이다.

| 점검 문항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
| 예배 참석 여부만으로 사람의 믿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새벽기도나 특정 기도 방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열심히 성도로 낙인찍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헌금 액수나 헌금 종류가 개인의 신앙 등급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봉사를 거절하거나 쉬는 성도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전도 실적이나 숫자로 개인의 믿음을 비교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직분이 명예나 신앙 계급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성도의 직업, 건강, 돌봄,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참여를 권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교회 규칙과 성경의 명령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 이렇게 한다”는 전통도 필요하면 질문하고 수정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외적인 종교행위뿐 아니라 사랑, 정직, 용서, 책임 같은 삶의 열매를 중요하게 여긴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목회자와 지도자도 동일한 기준 아래 책임을 진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신앙의 실천을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조건보다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가르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점검 후 함께 적어보기

우리 교회가 잘 지키고 있는 건강한 신앙 전통 한 가지: \_\_\_\_\_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사람에게 부담이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_\_\_\_\_

#### 현실 사례로 토론해 봅시다

##### 사례

오랫동안 새벽기도와 여러 봉사에 참여해 온 한 성도가 부모 간병과 직장 문제로 한동안 새벽기도와 주 중 봉사를 쉬게 되었다. 주변에서는 “요즘 믿음이 많이 식은 것 같다”고 말하고, 한 직분자는 “이런 상태라면 다음 직분을 맡기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본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지만 교회에 갈 때마다 죄책감과 눈치를 느끼기 시작한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신앙의 책임이며, 무엇이 사람을 평가하는 새로운 율법이 될 수 있을까?

- 이 성도의 신앙 상태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까?
- 교회 지도자는 그에게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할까?
- 새벽기도와 봉사를 권하는 것과 압박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 직분을 맡길 때 실제로 살펴야 할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 개인 점검

- 나는 어떤 신앙 행위를 했을 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자”라는 우월감을 느끼는가?
- 반대로 무엇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 때문에 더 죄책감을 느끼는가?
- 내 기준으로 다른 성도의 믿음을 판단했던 경험이 있는가?
-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의무에서 감사의 응답으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공동체 점검

- 우리 공동체가 성도에게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신앙행위는 무엇인가?
- 그 요구는 성도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눈치와 비교를 만들고 있는가?
- 외적인 참여가 적어도 삶에서 사랑과 정직의 열매를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 이번 주 실천

이번 주에는 신앙생활 한 가지를 선택하여 행동의 양보다 동기를 살펴보자. 주일예배, 기도, 헌금, 봉사, 전도 가운데 하나를 정하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본다.

#### 나의실천기록

- 내가 선택한 신앙 실천: \_\_\_\_\_
- 나는 주로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_\_\_\_\_
- 하지 못했을 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_\_\_\_\_
-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다시 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_\_\_\_\_

#### 우리 공동체의 작은 변화

- 이번 주 우리 공동체에서 “해야 한다” 대신 “왜 하는가”를 설명해 볼 한 가지: \_\_\_\_\_
- 성도를 비교하거나 죄책감을 주는 표현 가운데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_\_\_\_\_

#### 이번 주에 기억할 문장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이다.

## 5주차

### 돈과 직분 앞에서 교회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헌금, 재정, 목회자 사례, 교회 재산과 직분이  
섬김의 도구인지 영향력과 지위의 기준인지 함께 점검합니다.

#### 이번 주 핵심 질문

돈과 직분이 교회를 섬기는 수단을 넘어 사람의 영향력과 서열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돈과 직분은 교회에 필요한 영역이다. 교회는 헌금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통해 공동체의 책임을 나눈다. 목회자도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건물과 재산 역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돈과 직분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람의 가치와 영향력을 결정하기 시작할 때 생긴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큰 발언권을 갖고, 직분이 높은 사람이 더 존중받으며, 교회 재정과 재산이 소수의 판단에 좌우된다면 공동체는 복음의 질서보다 세상의 서열을 닮아갈 수 있다.

이번 주에는 “돈은 나쁘다”거나 “직분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돈과 직분이 어떻게 사용될 때 공동체를 살리고, 언제부터 사람을 나누고 통제하는 힘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 1. 헌금이 많은 사람은 더 큰 영향력을 가져도 되는가?

교회는 큰 헌금을 한 성도의 헌신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와 영향력은 같은 것이 아니다. 헌금액이 클수록 회의에서 의견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거나, 목회자가 그 사람의 반응을 특별히 의식하게 된다면 재정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르지 않다. 교회의 결정 역시 헌금 액수보다 공동체의 사명, 원칙,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한 교회는 돈이 많아서 자유로운 교회가 아니라, 돈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거나 사람을 다르게 대하지 않는 교회다.

특히 “이분이 많이 헌금하시니까”라는 말이 인사, 사업 결정, 직분 선출, 목회적 판단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을 공동체는 경계해야 한다.

#### 2. 재정은 얼마나 공개되어야 하는가?

교회 재정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 공동체가 맡긴 자원이다. 따라서 누가 얼마를 냈는지를 공개하는 것보다, 들어온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과 결산이 형식적으로만 보고되거나, 큰 지출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려지거나, 질문하는 성도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신뢰는 약해진다.

투명성은 모든 세부 정보를 무조건 공개한다는 뜻이 아니다. 개인정보와 목회적 기밀은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 돈의 흐름과 중요한 결정 과정은 설명 가능해야 한다.

#### 4. 목회자 사례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건강한가?

목회자가 경제적 불안 없이 사역하도록 적절한 사례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반대로 목회자가 자신의 사례비와 혜택을 사실상 스스로 결정하거나, 질문 자체가 금기시되면 건강한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사례비는 목회자의 가치를 매기는 금액도 아니고, 가난해야 경건하다는 증거도 아니다. 지역 생활비, 교회의 형편, 사역 책임, 가족 상황,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독립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액수 하나보다 결정 구조다. 누가 제안하고, 누가 검토하며, 이해충돌이 있을 때 당사자가 어떻게 빠지는지가 신뢰를 만든다.

#### 4. 교회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교회 건물, 토지, 예금, 차량, 비품은 오랜 시간 많은 성도의 헌신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특정 목회자나 특정 세대, 특정 직분자의 소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 재산은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 맡겨진 자원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건축, 매각, 담보 제공, 대출, 이전과 같은 큰 결정일수록 충분한 정보와 공동체적 절차가 필요하다.

교회가 성장할 때뿐 아니라 쇠퇴하거나 문을 닫을 때에도 이 원칙은 중요하다. 남은 재산을 누구의 뜻대로 처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정관과 교단 규정, 법적 책임, 공동체의 사명을 따라 정리되어야 한다.

#### 5. 장로·권사·집사 직분은 섬김인가, 지위인가?

직분은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책임을 맡는 자리다. 그러나 한국교회 문화에서는 직분이 때로 신앙 경력의 인정, 명예, 발언권, 심지어 사회적 호칭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직분을 받지 못해 상처받거나, 직분이 높아질수록 대우가 달라지거나, 특정 직분자가 자신의 견해를 관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섬김의 의미가 약해진 것이다.

건강한 직분 문화에서는 직분이 높을수록 더 많은 특권이 아니라 더 큰 책임과 섬김을 요구한다. 직분 이없어도성도의 존엄과 참여 기회는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 6 돈과 직분이 결합할 때 더 위험해진다

교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순간은 경제적 영향력과 직분의 권위가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집중될 때다. 큰 현금을 하고중요한 직분까지 가진 사람이 인사, 재정, 목회 방향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견제하기가 어려워진다.

반대로 목회자가 인사권과 재정 정보, 직분 임명에 모두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구조도 위험할 수 있다. 좋은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도 구조는 건강해야 한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의 선의를 믿으면서도 권한을 나누고, 기록하고, 설명하고,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신뢰와 검증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

####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1. 우리 교회에서 현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의견이 실제로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_\_\_\_\_
2. 교회 재정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와 보호되어야 할 정보는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_\_\_\_\_
3. 목회자 사례비와 복지는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 것이 가장 건강할까?  
\_\_\_\_\_

4. 교회 건물과 재산을 “우리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누구를 의미해야 할까?

5. 장로·권사·집사 직분이 섬김보다 명예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6. 헌금 실적이나 교회 봉사 경력이 직분 선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7. 돈과 직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 우리 교회의 돈과 직분 문화 점검표

다음 문항은 특정 개인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구조와 문화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이다.

| 점검 문항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
| 헌금 액수와 상관없이 성도의 의견을 동일하게 존중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큰 헌금자가 교회 결정에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고 여기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예산과 결산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설명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큰 지출과 재산 관련 결정에는 명확한 승인 절차가 있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목회자 사례와 복지는 당사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독립된 절차로 결정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재정 담당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교회 재산을 특정 목회자나 특정 직분자의 소유처럼 여기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직분이 없는 성도도 존중받고 중요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직분이 높아질수록 특권보다 책임과 섬김을 더 강조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헌금이나 봉사 실적만으로 직분 후보자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은 해당 재정·인사 결정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원칙이 있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재정이나 직분 문제를 질문해도 불신하거나 문제 인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점검 후 함께 적어보기

우리교회가돈을건강하게다루고있다고느끼는한가지: \_\_\_\_\_

우리교회의직분문화에서다시생각해보고싶은한가지: \_\_\_\_\_

#### 현실 사례로 토론해 봅시다

##### 사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많은 헌금을 해 온 장로가 새 교육관 건축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목회자는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인데 그 정도의 건은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재정위원 중 몇 사람은 우려하지만, 괜히 반대했다가 건축 헌금이 취소될까 말하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감사해야 할 헌신과 경계해야 할 영향력은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 큰 헌금자의 의견은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까?
- 헌금이 취소될 가능성 때문에 필요한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 설계·시공업체 선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이해충돌을 줄일 수 있을까?
- 목회자는 이 장로에게 감사하면서도 어떤 원칙을 분명히 설명해야 할까?

## 또 하나의 현실 사례

### 사례

한 성도가 오랫동안 교회 행사와 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번 장로 선출에서 탈락하자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크게 실망한다. 주변에서도 “그 정도 헌신했으면 장로가 될 만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 반응은 직분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가?

- 헌신과 직분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할까?
- 직분이 신앙의 보상이나 승진처럼 받아들여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 직분 후보자를 세울 때 실제로 살펴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

##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 개인 점검

- 나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더 중요한 사람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 내가 직분을 맡고 있다면 그것을 책임보다 인정이나 지위로 느끼는 부분은 없는가?
- 교회 돈이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지는 않은가?
- 교회 재산이나 직분을 “내가 오래 섬겼으니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 적은 없는가?

### 공동체 점검

- 우리교회에서돈때문에진실을말하기어려운상황이생길수있는가?
- 우리 교회의 재정 결정에서 누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누가 실제로 결정하는가?
-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이 없는 사람도 동일하게 존중받고 참여할 수 있는가?

## 이번 주 실천

이번 한 주 동안 교회에서 돈과 직분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주의 깊게 들어보자.  
말은 공동체가 무엇을 가치있게 여기는지를 드러낸다.

### 나의 실천 기록

내가 들은 “돈이 영향력이 되는” 표현 한 가지: \_\_\_\_\_  
 내가 들은 “직분이 지위가 되는” 표현 한 가지: \_\_\_\_\_  
 그 표현을 더 복음적이고 건강하게 바꾼다면: \_\_\_\_\_

## 우리 공동체의 작은 변화

재정에서 더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_\_\_\_\_

직분에서 특권보다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_\_\_\_\_

### 이번 주에 기억할 문장

현금은 영향력을 사는 수단이 아니며, 직분은 존중을 얻는 계급장이 아니다.  
돈과 직분은 모두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맡겨진 책임이다.

## 6주차

### 우리 교회는 복음 중심의 교회인가?

설교, 교육, 봉사, 전도, 교회 성장과 프로그램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자리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 이번 주 핵심 질문

복음은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처음 전도할 때만 전하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성도의 삶을 계속 이끌어 가는 중심인가?

####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

교회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의 모든 모습이 복음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도 실제 운영에서는 성과와 경쟁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도에게 끊임없이 헌신을 요구하며, 사람을 직분과 봉사와 헌금으로 평가한다면 교리가 복음적이라는 사실과 공동체의 문화가 복음적이라는 사실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복음은 단순히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구원의 공식이 아니다. 이미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교회의 설교와 예배, 관계와 재정, 권위와 봉사,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까지 바꾸어 가는 중심이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얼마나 자주 말하는가보다 복음이 실제로 교회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 1. 복음

많은 교회에서 복음은 전도와 연결하여 설명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복음의 중요한 선포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복음을 졸업하고 이제부터는 열심, 헌신, 봉사, 순종만 필요한 것처럼 가르친다면 복음의 자리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 믿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매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복음은 교회에 들어오는 문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평생을 걸어가는 길이다.

건강한 교회는 초신자에게만 복음을 설명하지 않는다. 오래 믿은 성도에게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 2. 설교

설교에는 자연스럽게 권면이 들어간다. 기도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

문제는 설교가 계속해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만 반복할 때이다. 성도는 매주 새로운 과제를 받지만 그것을 살아낼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충분히 듣지 못할 수 있다.

복음 중심의 설교는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 책임의 출발점을 분명하게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이렇게 살아간다.”

복음은 순종을 없애지 않는다. 순종의 이유를 바꾼다. 두려움에서 감사로, 인정받기 위한 행동에서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옮겨 간다.

### 3. 교회 성장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숫자 자체가 성공의 기준이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출석 인원, 헌금액, 건물 규모, 프로그램의 수, 유튜브 조회수와 사회적 영향력이 목회의 성적표가 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복음보다 결과가 중요해지고, 사람을 한 영혼으로 보기보다 교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바라볼 위험이 생긴다.

복음 중심의 교회는 성장을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성장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 4. 성도의 헌신

교회에는 많은 일이 필요하다. 예배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주차를 돕고, 음식을 준비하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섬긴다. 이 모든 봉사는 귀하다.

그러나 교회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사람을 모집하고, 거절하는 사람에게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면 헌신의 의미가 변할 수 있다.

“교회를 위해 더 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성도는 쉽게 지친다. 복음 중심의 교회는 성도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은혜를 누리게 한다.

사람을 사용하여 사역을 유지하기보다, 사역을 통해 사람을 세우려고 한다.

### 5. 실패한 사람

복음 중심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잘하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대할 때일 수 있다.

신앙생활에서 넘어졌거나, 결혼과 가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교회 봉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때 교회가 먼저 묻는 질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뿐이라면 복음의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

물론 잘못에는 책임이 필요하다. 복음은 책임을 없애는 면허가 아니다. 그러나 복음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건강한 교회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실패한 사람을 실패 자체로 규정하지 않는다.

## 6. 복음 중심의 교회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복음 중심의 교회는 단지 설교에서 ‘십자가’, ‘은혜’,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다.

복음이 공동체의 실제 문화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실수한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질문하는 사람이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가?

지도자도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책임지는가?

직분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존중받는가?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해도 위축되지 않는가?

오랫동안 봉사하다 잠시 쉬어도 죄책감을 주지 않는가?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가?

복음은 교회의 신앙고백에만 적혀 있는 문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1. 내가 생각하는 ‘복음 중심의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

2.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때는 언제인가? 전도할 때인가,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그런가?

---

3. 설교를 듣고 난 뒤 나는 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느끼는가?

---

4.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는 것과 교회 성장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

5. 성도에게 헌신을 권하는 것과 교회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어디에서 달라지는가?

---

6. 우리 교회에서는 실패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

---

7.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복음 중심적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우리 교회의 복음 중심성 점검표

각 문항은 우리 교회가 ‘복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실제 공동체 문화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점검이다.

| 점검 문항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
| 복음을 초신자에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계속 필요한 은혜로 가르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설교에서 성도의 의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충분히 선포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출석 인원이나 헌금, 건물, 프로그램의 규모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공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                                                                                       |
|------------------------------------------|---------------------------------------------------------------------------------------|
| 사역의 성과보다 한 사람의 영적 성장과 회복을 중요하게 여긴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성도에게 봉사를 권할 때 형편과 은사, 삶의 상황을 존중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봉사를 잠시 쉬거나 거절해도 죄책감을 주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실패하거나 넘어졌던 사람에게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지도자도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책임질 수 있는 문화가 있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을 곧 불순종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헌금이나 직분, 봉사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성도를 존중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교회의 결정에서 조직의 유익보다 복음의 가치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점검 후 함께 적어보기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은혜가 잘 드러나는 모습 한 가지:

복음보다 성과·관습·조직의 필요가 앞설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 현실 사례로 토론해 봅시다

#### 사례 1

한 교회가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면서 예배와 프로그램이 많아졌다. 새로운 사역이 생길 때마다 봉사자가 더 필요해졌고, 목회자는 설교와 광고를 통해 성도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다. 오랫동안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던 한 성도가 직장 가정 문제로 한동안 봉사를 쉬겠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다 힘들어도 봉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싫어하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교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 교회에서 복음의 은혜와 성도의 책임은 어떻게 함께 세워질 수 있을까?

- 봉사를 권하는 것과 헌신을 압박하는 것은 어디에서 달라지는가?
- 성도의 영적 상태를 봉사의 양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 교회 프로그램을 줄이더라도 성도를 쉬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가?
- 이 성도에게 교회 지도자가 먼저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
-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책임 없는 신앙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 개인 점검

-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 나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 다른 사람의 신앙을 봉사, 헌금, 출석, 직분으로 판단한 적은 없는가?
- 나는 복음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은혜보다 성과와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 공동체 점검

-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칭찬받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 많이 봉사하는 사람인가, 많이 헌금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가?
- 우리 교회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와 “복음에 합당한가?”가 충돌한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

### 이번 주 실천

이번 한 주에는 교회생활 가운데 한 가지 상황을 선택하여, 기존 관습이나 효율보다 복음의 관점에서 내가 선택한 상황:

1. 나는 평소 이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가?

---

2. 복음의 은혜를 기준으로 다시 바라본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

3. 내가 한 사람에게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행동은 무엇인가?

---

### 우리 공동체의 작은 변화

1.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

2. 누군가에게 “더 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 질문 한 가지:

---

### 이번 주에 기억할 문장

복음은 교회에 들어오는 문만이 아니다.

복음은 교회와 성도가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다.

교회가 복음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복음을 자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고 은혜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 우리의 예배는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인가?

설교, 찬양, 기도, 성경봉독, 헌금과 성찬 속에서 회중이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여자인지 점검합니다.

### 이번 주 핵심 질문

주일예배에서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목회자와 찬양팀이 예배를 이끌고 회중은 그것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오늘 예배 좋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았다는 뜻일까? 찬양이 좋았다는  
것일 수도 있고, 설교가 감동적이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영상과 음향이 훌륭했고

예배 순서가 매끄러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물론 좋은 찬양과 설교, 잘 준비된 예배는 중요하다. 문제는  
어느 순간 예배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얼마나 좋은 것을 경험했는가”가 될 때이다. 그렇게 되면 예  
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얻는 시간이 되기 쉽다.

예배의 중심에는 목회자도, 찬양팀도, 회중의 만족도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예배는 소수의  
사람이 앞에서 수행하고 나머지가 지켜보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공동  
체적 행위이다.

이번 주에는 예배의 형식이 현대적인가 전통적인가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예배가 실제로  
하나님 중심이며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인가를 살펴보려 한다.

### 1. 예배의 주인공

예배에는 설교자도 필요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안내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특정 설교자나 찬양팀이 예배의 분위기와 평가를 거의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다.” “오늘 찬양팀이 정말 잘했다.”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배를 계속 이런 방식으로만 평가한다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보다 앞에서 누가 얼마나 잘했는가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건강한 예배에서는 예배 인도자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회중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다. 좋은 예배  
인도자는 자신이 돋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회중이 함께 예배하도록 돕고 자신은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사람  
이다.

### 2. 찬양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날에는 전문적인 연주와 음향, 영상 기술을 통해 매우 수준 높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음악이 너무 크거나 복잡하여 회중의 목소리  
가 사라지고, 찬양팀의 노래를 듣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면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누가 찬양하고 있는가? 찬양팀은 회중을 대신하여 노래하는 공연자가 아니다. 찬양팀의 역할은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돕는 것이다. 때로는 화려한 편곡보다 회중이 편안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한 곡이 더 공동체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다.

좋은 찬양의 기준은 얼마나 감동적인 공연이었는가만이 아니라 회중 전체가 하나님께 자신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는가이다.

### 3. 설교

개신교 예배에서 설교는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그러나 설교가 예배 전체를 압도하면 예배는 어느 순간 '설교를 들으러 가는 시간'처럼 변할 수 있다.

성경봉독, 찬양, 기도, 신앙고백, 헌금, 성찬과 공동체의 응답은 설교를 기다리는 부수적인 순서가 아니다. 모두가 예배다. 설교 역시 목회자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서는 시간이어야 한다.

건강한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말씀 위에 서지 않는다. 설교자도 회중과 함께 말씀 아래에 선다.

### 4. 기도와 성경봉독

예배에서 회중의 참여는 단순히 찬송을 따라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함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고, 때로는 공동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다. 그런데 예배의 모든 말을 목회자와 몇몇 인도자만 하고 회중은 대부분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회중의 역할은 점점 수동적이 될 수 있다.

회중이 성경을 함께 읽거나 응답하고, 함께 기도하며 “아멘”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가보다 모든 회중이 자신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가이다.

### 5. 헌금

헌금도 예배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신앙적 응답이다. 그러나 헌금 시간이 모금처럼 느껴지고, 헌금액이 강조되거나 특정 헌금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 예배의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

헌금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행위가 아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예배에서는 헌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헌금하는 사람의 형편과 자유를 존중하고, 헌금액으로 신앙을 평가하지 않는다.

### 6. 예배의 분위기

예배 중 감동을 경험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찬양하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설교를 듣다가 깊은 위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강한 감정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예배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반대로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도 아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다. 기쁨 때도, 슬픔 때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하나님 앞에 선다.

건강한 예배는 감정을 무시하지 않지만 감정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1. 나는 주일예배에서 나 자신을 주로 참여자라고 느끼는가, 관람자라고 느끼는가?

---

2. “오늘 예배가 좋았다”고 말할 때 나는 주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3. 찬양팀의 음악적 완성도와 회중의 참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

4. 우리 교회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절한가? 예배의 다른 요소들은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가?

---

5. 회중이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가?

---

6. 예배에서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

7. 우리 교회 예배가 지금보다 더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우리의 예배” 점검표

각 문항은 예배의 형식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안에서 회중이 실제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점검이다.

| 점검 문항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
| 예배의 중심이 특정 목회자나 찬양팀이 아니라 하나님임이 분명하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찬양팀은 공연하기보다 회중의 찬양을 돕는 역할을 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찬양의 음량과 편곡이 회중이 함께 부르기에 적절하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회중이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응답할 기회가 있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성경봉독이 단순한 예배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으로 존중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설교가 예배의 다른 모든 요소를 압도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설교자도 회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 있다는 태도가 나타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헌금은 모금보다 감사와 헌신의 예배로 설명된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헌금액이나 종류로 성도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감정적 고조를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 |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
| 어린이, 노년층, 장애인 등 다양한 회중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                             |                              |
| 예배를 마친 뒤 “무엇을 받았는가?” 뿐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                              |                             |                              |

## 점검 후 함께 적어보기

우리 교회 예배에서 회중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한 가지: \_\_\_\_\_  
회중이 관람자가 되기 쉬운 부분 한 가지: \_\_\_\_\_

## 현실 사례로 토론해 봅시다

### 사례1

한 교회가 젊은 세대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예배를 크게 바꾸었다. 전문적인 찬양팀과 밴드가 구성되었고 대형 스크린과 영상, 조명도 설치되었다. 예배의 음악적 완성도는 높아졌고 처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찬양팀의 소리가 너무 커서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앞에서 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기보다 좋은 공연과 설교를 보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면 다른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다. “요즘 시대에는 이 정도 수준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이 교회가 예배의 수준을 높이면서도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 전문적인 음악과 회중 참여는 서로 충돌하는가?
- 찬양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 예배를 처음 찾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과 기존 회중의 참여를 존중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 다른가?
- 예배의 변화를 결정할 때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할까?

##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 개인 점검

-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가, 좋은 예배를 경험하러 가는가?
- 설교나 찬양이 내 취향에 맞지 않을 때 예배 전체를 실패한 예배라고 판단하지 않는가?
- 나는 예배 중 실제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있는가, 아니면 앞에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가?

### 공동체 점검

- 우리 교회의 예배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 우리 교회의 찬양은 회중의 목소리를 살리고 있는가?
- 예배의 변화를 결정할 때 회중의 다양한 세대와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는가?
-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만드는 것’과 함께 ‘드리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 이번 주 실천

이번 한 주에는 예배를 평가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살펴보자.  
주일예배가 끝난 뒤 다음 질문에 답해 본다.

### 나의 예배 기록

1. 오늘 예배에서 내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순간은 언제였는가?  
\_\_\_\_\_
2. 나는 찬양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고백했는가?  
\_\_\_\_\_
3.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응답은 무엇인가?  
\_\_\_\_\_
4. 오늘 예배에서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보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_\_\_\_\_

### 우리 공동체의 작은 변화

1. 회중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예배 요소 한 가지:  
\_\_\_\_\_
2. 예배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_\_\_\_\_

### 이번 주에 기억할 문장

예배는 앞에서 몇 사람이 만들어 회중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공동체의 응답이다.

좋은 예배의 기준은 얼마나 화려하고 감동적이었는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셨으며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응답했는가이다.

## 우리가 함께 만들고 싶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지난 일곱 주의 점검을 비판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지킬 것·바꿀 것·새롭게 시작할 것을 함께 정리합니다.

### 이번 주 핵심 질문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 좋은 교회를 바라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지난 일곱 주 동안 우리는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문화를 함께 돌아보았다. 신앙이 자유와 기쁨을 주고 있는지,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목회자의 권위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좋은 신앙습관이 새로운 율법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다.

또 돈과 직분, 교회의 성공 기준, 다른 의견과 상처받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점검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목 적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우리 교회의 부족함만 발견하는 데 있지 않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하고 있어 계속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복음의 방향 과 맞지 않아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없지만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결정해 보자.

**건강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 앞에서 계속 배우고 고치며 성장하는 교회다.**

### 1.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발견하자

교회를 돌아볼 때 문제점만 찾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쉽게 방어적이 된다. 그러나 어떤 교회든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따뜻한 돌봄, 정직한 재정, 좋은 설교, 다음 세대 교육, 어려운 이웃을 돕는 문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건강한 변화는 좋은 것을 없애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 이미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함께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계속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이다.

### 2. 바꾸어야 할 것은 사람보다 문화와 구조에서 찾자

교회의 문제를 특정 목회자나 특정 성도 한 사람의 성격 문제로만 설명하면 같은 일이 반복되기 쉽다. 사람은 바뀌어도 구조와 문화가 그대로라면 비슷한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질문하기 어려운 분위기, 재정 정보를 일부만 아는 구조, 직분을 명예로 여기는 문화, 과도한 행사와 봉사, 목회자에 게 결정권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관행은 개인의 선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바꾸어야 할 것을 찾을 때는 "누가 문제인가?"보다 "어떤 관행과 구조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편이 더 생산적이다.

### 3.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은 작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큰 구호만으로는 공동체가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는 작고 확인할 수 있는

행동으로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재정 보고를 쉽게 설명해 주기, 봉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쉴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중요한 결정 전에 성도의 의견을 들을 통로를 만들기, 교회를 떠나는 사람과 건강한 작별 면담을 하기 같은 일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새로운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작은 변화 하나를 지속하는 것이 선언문 열 개보다 공동체를 더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다.

#### 4. 건강한 교회의 기준을 다시 세워 보자

건강한 교회는 교인 수가 많거나 프로그램이 화려한 교회만을 뜻하지 않는다. 규모가 작아도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약한 사람을 돌보고 책임 있게 의사결정을 한다면 건강할 수 있다.

반대로 규모가 크고 활동이 많아도 성도들이 지치고, 질문을 두려워하며, 돈과 직분이 영향력이 되고, 잘못을 고치기 어려운 구 조라면 건강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사용할 성공의 기준은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 관계의 건강, 투명성과 책임, 이웃을 향한 사랑, 그 리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어야 한다.

#### 5.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 혼자 만들 수 없고 성도들만의 노력으로도 만들 수 없다. 목회자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권위를 섬김으로 사용하며 설명하고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도 역시 소비자처럼 교회를 평가하는 데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필요한 질문을 하고, 험 담 대신 직접 대화하며, 자신의 은사와 시간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책임이 있다.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건강하게 지킬 때 교회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함께 세워 가는 공동체 가 된다.

#### 6. 변화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형성된 교회의 문화는 한 번의 회의나 설교로 바뀌지 않는다. 변화가 느리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반대로 급하게 모든 것을 고치려다 더 큰 갈등을 만들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우리는 사람을 통제하는 쪽이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숨기는 쪽이 아니라 투명하게 설명하는 쪽으로, 지 위를 높이는 쪽이 아니라 섬김을 깊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건강한 교회는 한 번 완성되는 결과가 아니라 공동체가 계속 복음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다.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1. 지난 7주 동안 가장 마음에 남았던 질문은 무엇이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2.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계속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좋은 문화나 전통은 무엇인가?

---

3.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거나 위축시키는 관행이 있다면 무엇인가?

---

4. .우리교회의의사결정,재정,직분,봉사,갈등처리가운데가장먼저개선하고싶은한가지는무엇인가?

5. 목회자가 바뀌어야 할 것과 성도가 바뀌어야 할 것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6. 우리 교회가 앞으로 1 년 동안 "건강해졌다"고 말하려면 어떤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야 할까?

7.우리가오늘결정할수있는가장작고현실적인변화한가지는무엇인가?

지켜야 할 것 · 바꾸어야 할 것 ·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

각 항목에 개인의 생각을 먼저 적은 뒤, 모임에서 공통된 의견을 찾아 보자. 가능한 한 사람의 이름보다 구체적인 문화·관행·절차를 적는다.

지켜야할것

바꾸어야할것

새롭게 시작할 것

정리하기

- 우리 공동체가 가장 자랑스럽게 지켜야 할 한 가지: \_\_\_\_\_
- 가장 시급하게 바꾸어야 할 한 가지: \_\_\_\_\_
- 이번 달부터 새롭게 시작할 한 가지: \_\_\_\_\_

우리 교회의 건강 점검

지난 8 주의 내용을 한 번에 돌아보는 최종 점검이다. "그렇다"가 많다고 자랑하기보다, "아니다"라고 답한 항목 가운데 무엇을 실제로 바꿀지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 문항

그렇다 보통 아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에게 의무감보다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더 경험하게 한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봉사와 행사가 사람을 소진시키지 않도록 휴식과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설명과 책임, 공동체적 견제 속에서 사용된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주일성수·헌금·기도·봉사·직분을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헌금 액수나 사회적 지위가 교회 안의 영향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점검 문항

그렇다 보통 아니다

재정과 주요 의사결정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된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교회의 성공을 교인 수·예산·건물만이 아니라 성도의 성숙과 삶의 열매로 평가한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상처와 갈등을 덮기보다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과 회복의 절 차를 밟는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며 건강하게 보내려 한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의 필요가 프로그램과 조직의 필요보다 뒤로 밀리지 않는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우리 교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실제 관행과 제도를 바꿀 수 있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 최종 점검 후 적어보기

우리 교회의 가장 건강한 부분: \_\_\_\_\_

앞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_\_\_\_\_

1년 뒤 꼭 달라져 있기를 바라는 한 가지: \_\_\_\_\_

### 현실적인 변화 계획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앞으로 90일 동안 실행할 한 가지를 정해 보자. 좋은 계획은 구체적이고, 담당자가 있으며, 확인할 날짜가 있다.

우리가 바꾸려는 한 가지

왜 필요한가

누가 함께할 것인가

첫 행동은 무엇인가

90일뒤어떻게확인할것인가

### 예시

목표: 분기마다 교회 재정의 핵심 내용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첫 행동: 재정 담당자와 목회자가 한 페이지 분량의 재정 보고 양식을 만든다.

확인: 3개월 뒤 성도들이 재정 사용 방향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간단히 의견을 듣는다.

### 개인의 약속

나는 이렇게 참여하겠습니다

☐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편을 나누기보다 먼저 들겠습니다.

☐ 문제를 험담으로 퍼뜨리기보다 필요한 사람과 직접 책임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 목회자와 지도자를 존중하되, 필요한 질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 직분과 봉사를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기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교회의 건강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한 가지 약속:

## 우리 공동체의 건강 선언문 만들기

아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해도 좋고, 모임에서 우리 공동체의 언어로 고쳐도 좋다.

### 우리 교회의 건강 선언문

우리는 사람을 교회에 묶어 두기보다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성숙하게 세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직분과 돈보다 사람을 존중하고, 권위보다 섬김을 앞세우겠습니다.

우리는 질문과 다른 의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이 있을 때 인정하고 고치겠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과 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귀하게 들겠습니다.

우리는 숫자와 외형만이 아니라 사랑, 정직, 책임, 관계와 삶의 열매로 교회의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주장하지 않고, 복음 앞에서 계속 배우고 변화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 8 주를 마치며

건강한 교회는 특별한 몇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목회자와 성도, 오래된 교인과 새로 온 교인, 직분자와 평신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원칙을 선택할 때 조금씩 만들어진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 문제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질문하고, 들으며, 고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 8 주가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먼저 더 자유롭게 정직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며 우리 공동체도 조금씩 더 건강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건강한 교회는 누군가 만들어 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교회다.

### 마지막으로 함께 적어 봅시다

1. 8주동안내가가장크게바뀐생각은무엇인가?

---

2. 우리교회를이전보다더사랑하게된이유또는새롭게보게된부분은무엇인가?

---

3. 내가 앞으로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

4. 우리 공동체가 1년 뒤 어떤 모습이 되어 있기를 바라는가?

---